

작년 미술품 가격 많이 올랐다

세계 미술시장 활황 힘입어…서양화 평균 33.5% 상승

세계적인 미술시장 활황세에 힘입어 지난해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에서도 미술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작품 가격이 상승하는 작가층도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미술선이 14일 내놓은 트렌드 리포트 '2006년 미술품 경매시장 결산'에 따르면 2006년 한해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근현대 서양화 가격은 2005년보다 평균 33.5% 상승했다.

또 국내 경매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근현대 서양화 작가 30명의 작품만 집중분석한 결과 '작품 가격지수(이하 2001년 100기준)'는 2005년 135에서 2006년에

는 181를 기록했다.

이들 30명 중 작품 가격이 가장 비싼 박수근, 김환기, 이우환, 김창렬, 오지호, 이대원, 도상봉, 장죽진, 박고석, 유영국 등 상위 10명의 경우 작품 가격지수가 2003년 147, 2005년 170, 2006년 215로 작품가격 상승률이 평균을 웃돌고 있다.

1억원 이상 낙찰기록을 갖고 있는 작가 중 작품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작가는 이우환으로 2005년 대비 2006년 작품 가격 상승률이 117%에 달했고 다음이 이대원(47%), 오지호(46%) 순이었다.

/연합뉴스

풍경이 있는 탑

문화재사진전 국립광주박물관

문화재사진연구회(회장 윤태홍)가 '풍경이 있는 탑'을 주제로 17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문화유산을 꾸준히 앵글에 담아온 문화재사진연구회는 이번 전시에서 전국에 있는 국보와 보물은 물론 유형문화재 금인 탑을 소재로 한 작품 30점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비비ッド을 견뎌온 사찰



윤태홍작 '옥천 쌍삼층석탑'

의 탑과 주변 풍경을 흑백영상에 수록, 문화재를 또 다른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문화재사진연구회는 이 전시에 이어 19일부터 2월 1일까지 부산개는갤러리에서 순회전을 가질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자연식 연구가 김순남씨 '의사도 못 고치는...' 출간

'밥상이 썩었다 당신의 몸이 썩고 있다'의 저자인 자연식연구가 김순남씨가 속편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밥장사가 고친다(전 2권·소금나무펴낸)를 출간했다.

저자는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전 국민이 암, 아토피, 정신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다"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연의학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다.

시민단체 '올바른 밥상차리기 운동본



부'를 이끌고 있기도 한 저자는 책에서 암, 뇌종양, 뇌졸증, 신장병, 당뇨, 아토피, 여성질환 등 여러 질병의 자연의학적 진단과 처방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소프라노 신영옥 광주 공연 23일 문예회관

2007년 새해 '러브 듀엣'



조수미·홍혜경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로 꿈꾸는 신영옥 씨가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회관에서 공연을 갖는다.

조수미씨가 상대적으로 광주에서 공연을 많이 가졌던 데 반해 신 씨의 무대는 오랜만의 공연이라 클래식팬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주가를 올리고 미국계 이탈리아 테너 레오나르도 카팔보(작은 시자)가 함께 출연, 수준높은 공연을 선사한다. 반주는 오페라를 비롯, 발레·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의 반주를 위해 창단된 모스틀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지휘 박상현)가 맡는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은 신 씨가 최근 발매한 음반 '러브 듀엣' 수록곡들 위주로 꾸몄다. '사랑의 묘약' 등 클래식 팬들에게 많이 알려진 정통 오페라곡들 중 특히 '사랑'이라는 테마로 뮤는 아름다운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레페토리는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산들바람에게 물어 보시오', 비제의 '진주 조개잡이' 중 '그대 가슴은 내 마음 이해 못하오',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 '가세요, 당신을 용서

세계적 테너 레오나르도 카팔보와 무대

모스틀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반주

하겠어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 '기쁨의 춤동',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등 클래식 팬들에게 익숙한 오페라 곡들을 솔로와 듀엣곡으로 들려준다.

그밖에 모스틀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카발리에리아 루스티카나' '피가로의 결혼' 등 유명 오페라의 서곡과 간주곡을 비롯,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 등을 선사한다.

서정적이고 청아한 목소리의 주인공인 신 씨는 지난 1989년 미국 스플레이트 폴스티벌에서 '피가로의 결혼'의 수잔나 역으로 세계 오페라에 데뷔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뉴욕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이 공연한 '세미리아디파'의 아제마 광주 역, '리글로토'의 질다 역, '가면무도회' 등에서 전사를 받은 신 씨는 2007년 미녀스타 오페라극장 초연작인 '라크메'에 출연하는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함께 무대에 서는 레오나르도 카팔보는 2004년 오페라 '허무한 인생'으로 유럽 무대에 데뷔한 후 이스라엘 오페라단, 라인 오페라극장, 뉴욕시립오페라단 등과 '사랑의 묘약'과 '트라비아타'를 공연한 바 있다. 티켓 가격 10만원, 8만원, 6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CEO 광주예총회장을 고대한다

오는 19일 광주 문화예술인들의 구심체인 광주예총의 제7대 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출사표를 던진 김태숙(58·광주예총 감사), 박윤모(53·광주공동예술극장장), 최규철(53·전남대 미대 교수)씨 등 3명의 입후보자들은 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연일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예총은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만만치 않다. 10개 협회 5천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가장 큰 예술가 단체인데다, 문화중심도시조성 프로젝트에서 문화관광부의 민간파트너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학부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3명의 입후보자 모두 광주 예총의 위상강화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같은 분위기와 비례해 최근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는 "광주 예총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젠 더 이상 예총 회장자리가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밀 때 쓰리는 '감투'가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 예총은 지역문화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보다는 몇몇 문화계 인사들만이 참여하는 '그들만의 잔치'였다. 또 시가 지원하는 기금으로 근근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당신에 끌려다니는 등 협회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면도 없지 않았다.

이런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광주예총의 차기 회장은 문화마인드와 추진력, 여기에 국제감각을 겸비한 CEO형이어야 한다. 예전처럼 시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회장이 아니라, 문화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굵직한 사업들을 기획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오랜 현장경험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문화기획자로서 겸증된 후보를 골라내는 해안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대책없는 풍상가는 곤란하다. 재무회계를 위해서는 집무실 보다는, 직접 현장을 누비는 수완을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 요즘처럼 각 단체들에 주어지는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낙천한 재정확보는 예총의 '발등의 불'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신임 회장이 해야 할 짓이다.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문광부가 이 사업의 주도권을 코드에 맞는 민예총에 넘긴지 오래됐다는 자조섞인 분위기가 펼쳐졌다. 실제로 예총은 문화전당 설계와 같은 이슈가 제기될 때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보다는 몇몇 인사들이 감정적인 대응으로 맞서 중요정책 결정과 정에서 배제됐다.

광주예총은 이끌어갈 차기 회장의 임기 4년은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는 여정과 맞물려 있다. 인맥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인물 중심으로 새 수장을 뽑아야 하는 이유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35년 전통의 북교당 한약방이 연구 개발한

장생·독중 오가파 식품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한 수험생, 직장인, 주부, 운동선수 부모님과 친지에게 좋은 선물
※ 두충오가파 판매가 - 30팩 : 5만원 / 60팩 : 10만원

장생식품 TEL.(062)385-3303, 362-6900

사군대리점 모집

동의보감·본초학에서 효능증명

■ 두충(杜仲)

잇은 맹과 달의 성질은 떫듯이 간, 신장에 작용하여 긴과 신장을 보호하고 혈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며 테이를 안정시킨다. 정기의 식도로 인한 유통, 무리로 치고 시린 증상과 통증, 조류, 소변이 잘 안나온 것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강장 효과가 있어 물을 듣는하게 하고 신장과 간 기능을 촉진시킨다.

■ 오가파(五加皮)

잇은 맹과 쓰며, 성질은 미晰하며, 간과 신장에 작용한다. 뿌으로는 풍습을 얹어고 경력을 질 수롭하게 하여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다. 따라서 몸이 저리고 아픈 증상이나 근육이 악하고 힘이 없는 증상 등에 효과가 있다. 또한 부종과 각기 등에 이용된다.

■ 희산(希仙)

김강과 신장을 보며 허리 증증, 고혈압을 예방하고 팔 다리 저림과 관절 냉통(疼痛)과 허리 근육을 강하게 하여 눈을 밟게 한다.

현대공인증개사

☎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행원에서 50m 차량 www.85865949.co.kr)

금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 급히 구합니다 ▶

【건물】

① 병원건물이나 병원으로 입대가 가능한 건물 현금 15억

② 임대 소득이 높은 삼가 건물

【토지】

① 전원주택부지·광주시내나 장성, 디양, 화순

② 광산구 관리지역·삼도, 본광

③ 동평공단 2차단지 부근 토지

④ 투자 가치가 확실한 토지

◀ 급히 팝니다 ▶

① 하남 2지구 택지

준주거울지 170평 9억5천만원, 170평 9억원, 최고의 상권

② 흥정, 정비공장, 식당, 청고부지

일반공장 대지 21평 1억5천만원

③ 미등등 김대중컨벤션앞

상산신도시 908평, 광장 180만원

④ 매월등 유동단지 택지

농산물 공판장 앞 261평, 평당 60만원

⑤ 카센타, 식당부지

광산구 소촌동, 영광간 35m 도보면, 140평, 평당 280평

⑥ 모텔·점포 대지 198평 건물 108평 대지 198평 개설 60평 대지 108평 매도가 25억

⑦ 들판정 고등학교 앞 21평 1억5천만원

⑧ 흥정, 청고부지 110평 15억

⑨ 흥정, 청고부지 110평 15억

⑩ 흥정, 청고부지 110평 15억

⑪ 흥정, 청고부지 110평 15억

⑫ 흥정, 청고부지 110평 15억

⑬ 흥정, 청고부지 110평 15억

⑭ 흥정, 청고부지 110평 15억

⑮ 흥정, 청고부지 110평 15억

⑯ 흥정, 청고부지 110평 15억

⑰ 흥정, 청고부지 110평 15억

⑱ 흥정, 청고부지 110평 15억

⑲ 흥정, 청고부지 110평 15억